

프로농구 사상 첫 최단신 선수가 '연봉 퀸'

키 164cm BNK 가드 안혜지
연봉 상한선 3억원에 '도장'
박혜진·김정은 등과 최고 연봉
슈팅 연습 하루 1000개씩
3점슛 성공률 36.2%로 3위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이라는 농구계 격언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농구에서 '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2020-2021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는 리그 최단신 선수가 최고 연봉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부산 BNK의 주전 가드 안혜지(23)다.

프로필상 키가 164cm인 안혜지는 2019-2020시즌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등록 선수 가운데 최단신이다.

안혜지 외에 부천 하나은행 강계리, 인천 신한은행 김애나, 아산 우리은행 신민지가 164cm로 키가 같아 네 명이 공동 '최단신 1위'를 기록했다.

안혜지는 지난 15일 소속팀 BNK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벌인 끝에 연봉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현재 WKBL 연봉 상한선이 3억원이기 때문에 안혜지는 박혜진, 김정은(이상 우리은행) 등과 함께 2020-2021시즌 '공동 연봉퀸' 자리에 오르게 됐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리그 최장신 선수 정주 KB의 박지수(22-198cm)도 지난 시즌에 이어 3억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998년 출범한 여자프로농구에서 리그 최단신 선수가 최고 연봉을 받은 것은 올해 안혜지가 처음이다.

안혜지는 29일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잘 해서 (최고 연봉을) 받았다기보다 동료 선수들을

잘 만났고 운도 좋았다"며 "받아도 되나 싶은 부담도 있고, 또 이왕 계약했으니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생각도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2년 연속 어시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안혜지는 2019-2020시즌에는 평균 어시스트 7.7개를 배달해 여자프로농구가 단일리그로 치러진 2007-2008시즌 이후 최다 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 이미선 삼성생명 코치 등 여자농구의 '전설'로 불리는 선수들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부산 동주여고 출신인 안혜지는 부산 대신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다.

그는 "선생님이 농구 선수를 모집한다고 교실을 돌아다니셨는데 저는 그때도 키가 작아 맨 앞에 앉아 있었다"며 "선생님이 '키 큰 애들 나와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저도 뽑히게 됐다"고 농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때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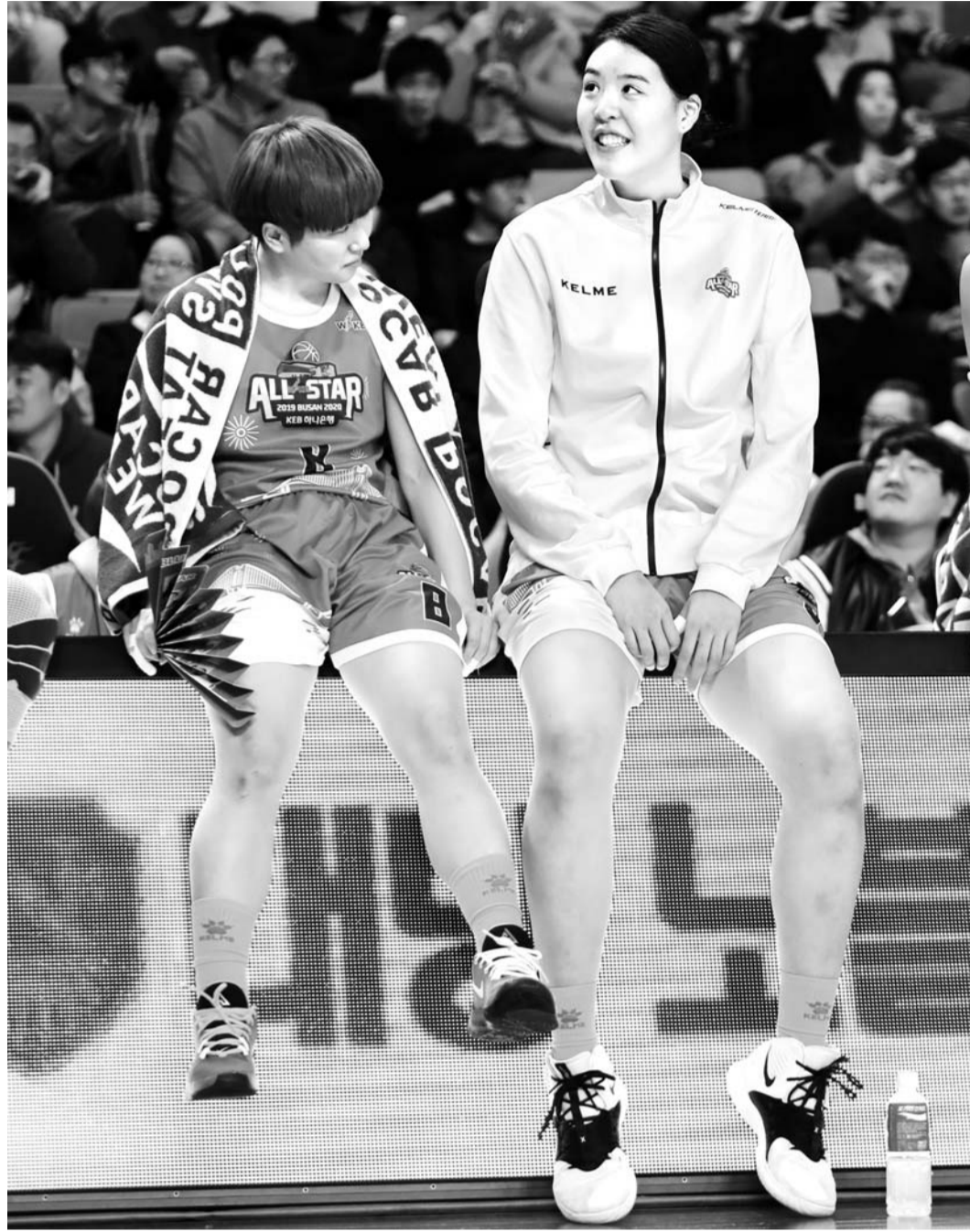
"운동할 것처럼 생기셨는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 묻는 주위 사람들에게 '농구'라고 답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안혜지는 "그래도 농구 선수가 아니라면 제 키가 일반인 평균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단신의 핸디캡을 메우기 위해 지난 시즌 슈팅 연습을 하루 900개에서 1000개씩 하는 등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 덕에 3점슛 성공률이 2년 전 11.1%에서 이번 시즌 36.2%(3위)로 수직으로 상승했고, 출전 시간도 평균 37분 16초를 기록해 최단신인 그가 6개 구단 선수들을 통틀어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안혜지



2020-2021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리그 최단신 선수인 부산 BNK의 주전 가드 안혜지가 최고 연봉을 받게 됐다. 올스타전 때 리그 최장신 박지수와 나란히 앉은 안혜지(왼쪽). /연합뉴스

쇼트트랙 빅토르 안 은퇴 결정 "무릎 통증으로 회복 어려워"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사진)이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러시아 방송연맹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방송연맹 회장은 이날 "(서울에 있는) 빅토르 안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빅토르 안은 지난 2018년 9월에 은퇴를 발표했다가 뒤이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3관왕에 오르며 '쇼트트랙의 황제'로 불렸던 빅토르 안은 국내 방송계 파벌 논란에 휩싸이고, 심한 무릎 부상으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출전권도 따내지 못하는 등의 시련을 겪다가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빅토르 안은 이후 2018년 9월 러시아에서의 선수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이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러시아는 빅토르 안이 선수로 복귀하면 환영하며, 자국 국가대표팀 코치나 고문으로 영입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었다.

빅토르 안은 러시아방송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시즌이 내 선수 생활의 마지막 시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라며 은퇴의 심정을 전했다.

빅토르 안은 "지금 몸 상태로는 시즌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치료와 재활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제대로 훈련하기 어렵다"라며 "무릎 통증으로 다른 부상도 생겨 컨디션 유지가 더 어려워졌다. 동기 부여만으로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뇌종양 환자의 소원 들어준 골퍼 스코트의 따뜻한 전화 한통

친구처럼 이야기...가족들 감동의 눈물

호주에 사는 76세의 로스 캠펠은 프로 골퍼 애덤 스코트(호주)의 팬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지만 캠펠은 가족들에게 "스코트는 내 절친한 친구이고, 정기적으로 골프를 같이 친다"고 말해 왔다.

스코트는 알지도 못했던 이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캠펠의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호주의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8일 2013년 마스터스 챔피언이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14승을 올린 스코트와 뇌종양을 앓는 캠펠의 사연을 보도했다.

뇌에 7개의 종양이 있는 데다 폐암까지 앓고 있는 캠펠은 상태가 악화하면서 현실과 소원을 착각하는 증세가 나타났다.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는 스코트와 골프를 치는 사이라고 착각하고, 항상 스코트의 전화를 기다렸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캠펠의 딸은 어렵게 스코트와 연락을 취했고, 스코트는 캠펠의 소원을 이뤄 주었다. 스코트는 캠펠에게 전화했고,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캠펠의 아내 팸은 "유명 선수들은 팬들에게 많은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덤은 우리가 연락하자 곧바로 소원을 들어줬다. 남편이 스코트와 통화하는 동안 나는 울었다"고 말했다. 스코트는 캠펠에게 전하는 물론이고 2013년 마스터스 우승 장면과 퍼팅 연습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함께 보냈다. /연합뉴스

코로나 때문에 좀 늦었죠? ...전남체육회 동계체전 해단식

종목단체 선수단 등 50여명 참석

좌석 2m 이상 거리 두고 진행

3관왕 조다운 등 우수선수 시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기됐던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이 열렸다. <사진>

전남체육회는 29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을 비롯 전남도, 전남교육청 관계자, 종목단체 선수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었다.

해단식 행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참석자 좌석을 2m 이상 이격시켜 진행했다.

전남선수단은 동계체전에서 6종목에 228명이 참가해 금 4, 은 3, 동 7개로 266점을 획득해 종합 10위에 올랐다.

우수 선수들에 대한 시상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부에서 3관왕에 오른 조다운(화순초 4년)을 비롯해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박수안(화순초 6년), 남초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진우(안양동초 6년), 컬링 남중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장민(망운중 2년), 여자초 스키 알파인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강다현(여수죽림초 4년)이 시상금을 받았다. /연합뉴스



윤보선 전남스키협회 회장과 이재양 전무이사, 망운중학교의 컬링팀의 창단 첫 동계체전 동메달 획득을 지원한 전남컬링경기연맹 이종구 회장과 신명건 부회장은 공로패를 받았다. 전남바이애슬론연맹 김장균 회장과 고은석 이사, 전남산악연맹 김정환 부회장과 김갑중 전무이사도 공로패를 받았다.

박종구 전남스키협회 감독을 비롯한 총 14명의 입상 경기임원이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경기력 향

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재무 회장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첫 단추를 잘 꿰어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계가 잠시 멈춘 상황이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오를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학교운동부 지원

15개 종목 21개 학교 선정

광주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동부를 지원한다.

시체육회는 광주지역 15개 종목, 21개교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20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예산이다.

지원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1개교이며, 국비예산 1억 8100만원이 종목과 학교 사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체육회는 학교운동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부와 종목 활성화를 위해 육성이 필요한 운동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학교와 종목을 선정했다.

김장준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운동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앞으로 열릴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기생충: 흑백판, 어벤저스: 엔드게임,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2관	어벤저스: 엔드게임,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3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4관	호텔 레이크
5관	기생충: 흑백판
6관	기생충: 흑백판, 호텔 레이크
9관	라라랜드, 캣츠 피아, 다이노쇼어 어드벤처: 백악기 공룡대백과
7관 씨네커틀	1917, 서지 이웃
8관 씨네커틀	저산 너머, 오픈 더 도어, 손더탑 더 무비: 꼬마 외계인 플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